

치 사

제46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군불교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용맹정진하고 있는 군승법사님들께 격려와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난 46년의 세월동안 헌신적인 군승법사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루어 내게 된 것은 실로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포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포교와 전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3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정우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숙과 변화의 전기(轉機)를 맞이하고 있는 군불교의 발전된 모습은 앞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육,해,공군 전후방 각지에서 군승법사님들에 의해 세워지는 포교와 전법의 원력은 ‘하나의 등불이 모여져 온 세상을 밝히게 된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결코 하나의 작은 등불로만 머물러있지 않을 것입니다.

군승법사님들을 비롯한 군불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수행과 정진, 포교와 전법이 둘이 아님을 잘 살피어 더욱 힘찬 정진과 노력으로 군불교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6년이라는 군불교의 역사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 왔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냈던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군불교가 지금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동과 성장을 지나 이제 중년의 성숙함에 들어서는데 군불교는 지나온 시간들에 안주하기보다는 자랑스러운 군불교 역사를 밑거름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군불교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자랑스러운 군불교의 역사를 밑거름삼아 결실의 꽃과 열매를 거두어들이 수 있도록 더욱 성숙된 포교와 전법의 용맹 정진을 기대해 봅니다.

제46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국군장병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불기2558년 11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대독